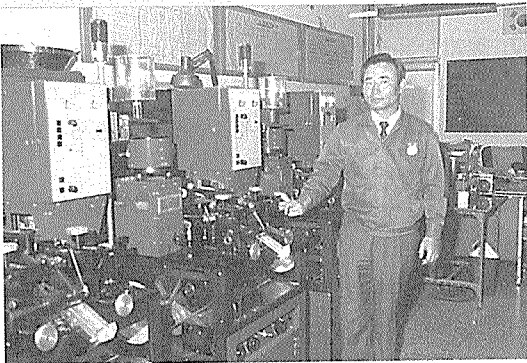


□ 업체탐방/韓陸電子(株)



鄭世能/韓陸電子(株) 代表理事

국 내 저항기 생산업체 중 1970년 4월 13일 설립 이래 부단한 제품개발 노력으로 지난 5월 21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韓陸電子를 찾아 보았다. 本誌가 찾은 韓陸電子(株)는 한국수출산업공단(구로구 가리봉동 459-14)에 대지 3,000평, 건평 2,000평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창립 20주년 기념 대형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창립 당시 자본금 4,000만원으로 시작한 同社は 현재 日本 北陸電氣工業(株)와

50 :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종업원 450명 자본금 8억 1,000만원, '89년도 총매출액 142억 6,000만원을 기록한 저항기 전문제조업체로 성장하였다.

그간의 주요 수상을 살펴보면 '87년 11월에 1,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으며, 同年 12월에는 공장 품질관리 1등급을 획득했고, 작년 4월에는 과학기술진흥유공업체로 산업훈장 석탑을 수상한 바 있다.

1984년 韓陸電子(株)의 代表理事로 취임한 鄭世能 사장은 “당시 전자업계는 전자기술의 불모지 상태로 우리나라가 하루 빨리 공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진공업국의 기술과 자본을 합작으로 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었다.”고 同社の 창립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同社の 생산품목으로는 炭素皮膜固定抵抗器(Carbon Film Fixed Resistors), 酸化金屬皮膜固定抵抗器(Metal Oxide Film Fixed Resistors), 捲線 CEMENT 抵抗器(Wire Wound Cement Resistors) 등 많은 종류가 있으나 '88년 이후 전자제품의 필수적인 부품이 첨단화되어 가는 기술수준에 부응하여



MELF chip(원통형) 저항기 및 角形 chip 저항기를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다.

同社は 78년 이후 매년 1회 전직원 중 10명~30명을 선발하여 일본 연수를 실시하는데 입사 후 만 5년이 되면 누구에게나 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일본 연수를 통하여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점들도 있으나 직접 일본의 생산라인을 견학하고 나면 자신 및 직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가져다 준다. 또한 합작선과의 TQC 전개는 기초기술의 습득과 신제품 개발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金榮之 전무는 설명하고 있다.

정부 및 관련업계에 대하여 鄭世能 사장은 “예전에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있어 업체가 독자적으로 혹은 합작선으로 이끌어 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소재 부품에 신경을 써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System을 강조하며 세트(부품업체)들의 도급거래 활성화에도 서로의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랑”을 사훈으로 건강하고, 화목하고, 책임완수 하는 자세로 화합된 가족적

인 분위기의 평생직장의 구현을 이상으로 하는 韓陸電子(株)는 鄭世能 사장의 정확한 판단과 현상에 대처하는 합리적인 경영철학으로 20년을 맞이하는 현재까지 노조가 없으며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경영진 및 생산직 모두가 회사 사정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건의하고 있다. 또한 매달 1명을 각 부서장이 추천하여 인사위원회의 투표를 통하여 이달의 모범사원을 뽑아 1호봉 특진이 주어진다. 1년 동안 선발된 12명의 모범사원 중 이 해의 모범사원이 추천되어 지는데 모범사원 모두는 대형사진으로 복도에 진열된다.

그년 들어 원화 환율, 노사분규 및 수입규제의 절정기임을 예상하여 올해를 극복하자는 “극복 '90”의 표어 아래 불량없는 System을 추구하며 “국내의 합작업체 중 가장 모범적인 업체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 韓陸電子(株)는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내외로 발전해 나아가는 모범적인 제조업체로의 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